

월급받는 주부의 꿈 이룬다

완주 여성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 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기관인 완주여성 새일센터가 월급 받는 주부의 꿈을 이뤄주고 있다.

2015년 8월 문을 연 '완주여성 새일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의 구직과 취업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난 1년 동안 취업 504명, 구인 529명, 구직 776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동행면접 165개 업체에 251명, 창업 23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월급 받는 주부를 배출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사후관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이고 맞춤형 일자리 멘토링 지원으로 완주 여성들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은 전문기술·기업

맞춤형훈련·창업과정·취약계층과정 등 직무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직업교육이수 현황, 경력사항 등을 바탕으로 취업을 연계하며 필요시 취업설계가 동행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등 직업의 다양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완주여성새일센터의 인기 높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은 '생활나무 코디네이터', '창업과정-팩배이커', '기업맞춤형훈련과정-생산제조품 관리원 양성과정' 등으로 수료생들은 목공예 강사 및 로컬외식 조리 취·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자동차부품

양성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계임 완주 여성새일센터장은 "직업훈련, 직업상담, 취업설계 등 완주여성새일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일자리 협력망 회의 등을 통해 여성취업기업 협약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과 구직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여성은 완주 여성 새 로 일 하 기 센 터 (290~3881~5)에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는 무풍면 사과농가를 찾아 사과 및 따기 착색작업 등을 도왔다.

농협 무주군지부,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정재호)은 무주농협 과동열 조합장·구천동농협 양승욱 조합장 외 임직원들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8일 고령화시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봉사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봉사는 제매 영농작업을 하지 못하는 무풍의 사과농가들을 찾아서

사과 및 따기 착색작업 등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재호 지부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이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다스리나 달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경찰서는 9일 안성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역근절을 위한 치안설명회를 가졌다.

무주경찰, 안성면 찾아 치안설명회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는 9일 안성면사무소를 방문해 마을이장,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 안전과 4대역 근절을 위해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치안설명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추진시책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그동안 추진한 4대역 근절 대책을 설명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전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사칭 개인정보 요구 등에 대해 사례별로 정리하며 설명도 했다.

무주경찰서는 안성면을 시작으로 설천, 무주읍 등 각 읍·면을 순회하며 치안설명회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최성규 서장은 "안전하고 치안이 바로한 무주, 군민이 공감하는 치안활동을 다양하게 펼쳐 지역의 안전을 최선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농산물가공센터 제품 HACCP 취득

액상차·고형차·과채가공품류 등 14개 제품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는 9일 진안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을 취득한 식품유형은 액상차, 고형차, 과채가공품류, 기타 가공품 4개 유형, 14개 제품이다. 특히 2013년 신축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2014년부터 홍삼추출 농축액, 청류, 분말류 제품을 가공하여 현재까지 90여 농가가 참여해 10톤의 농산

물을 제품화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단순히 제품생산, 판매 지도의 역할 뿐만 아니라 관내 소규모업체 HACCP 적용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위생 및 작업자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영화 소장은 "체계적 위생관리로 안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에 HACCP 인증마크 부착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원재



진안농산물종합가공센터 14개 제품 HACCP 취득.

료에 대한 증급속,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성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가공제품의 고품질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왜성 코스모스·공작초 2800그루 무료 분양

'가을' 축제 대상 마을 15곳에

무주군은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 개최되는 '마을로 가는 가을' 축제 대상 마을 15곳에 경관용 꽃을 무료로 분양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꽃은 왜성 코스모스와 공작초 2종 등 총 2,800주로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 12일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담당 이장원은 "왜성 코스모스는 일반 코스모스보다 키가 작고 색깔이 화려해 경

관용으로 좋고 '프렌치 메리 골드'라고 불리는 공작초는 다화성 품종으로 개화 기간이 길어 선호도가 높다"며 "꽃들로 인해 마을이 더 아름답고 마을로 가는 축제가 더욱 풍성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반딧불축제와 맞물려 진행을 하다 보니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실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곳곳에 심은 꽃들이 마을 특성에 맞춰 준비한 프로그램들과 맞물려 손님들이 행복해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마을로 가는 축제는 지난해 반딧불 축제 때 개최하기 시작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부터는 사계절 축제로 확대해 계절과 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먹거리로 인기를 얻고 있다.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 하는 마을로 가는 '가을' 축제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무주읍 전도마을과 무풍면 승자마을, 설천면 호룡마을, 삼도봉, 진평, 대평마을, 안성면 두문마을, 중산, 진원, 죽장, 외당마을, 적상면 치목, 과목, 초리, 내창마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진안산단
063-430-2951

특별블로그

무주군, 사업장 환경시설 점검

무주군은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33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대기오염물질과 수질, 폐기물 배출시설로 군은 2개소 4명의 지도 점검반을 구성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폐수무단 방류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 환경관리 담당 이지영은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마인드 확산과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점검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깨끗한 무주 실현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을 지원 하는 등 환경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토욕동 계곡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장수군은 제24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9일 토욕동 계곡(계곡면 소재)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재난안전네트워크단체, 관계공무원, 물놀이 안전요원 등 30명은 토욕동 계곡을 찾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시 구명조끼 사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이 실린 홍보전단지과 부채를 배부하며 안전한 휴가를 보내는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토욕동 계곡과 신기하천 등 물놀이 취약지역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도로바닥에 도로명 표기

장수군이 장수를 찾은 내방객과 도로이용객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로바닥에 도로명 안내표시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바닥형 도로명 안내 표식은 논개사당 진입로, 장수 승마체험장 진입로, 장수파출소 사거리, 동천사거리 등 헷갈리기 쉬운 교차로로 군은 도로바닥에 도로명을 표기함으로써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도로에 도로명판 1,600여개, 건물번호판 13,400여개 등 15,000여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갖췄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도로명 시설을 설치와 홍보활동으로 생활 속 도로명주소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축산물 유통실태 점검

진안군은 예년보다 고온다습한 찜통더위에 부적합한 축산물 유통에 의한 식중독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축산물 유통실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의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상태, 축산물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점검결과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여 변질된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진안군은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 처리업소 총 54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